

동대문구, 내년 예산 9824억 편성... 올해비 7.85% ↑

복지 분야 56.62% 투입... AI 행정·교육도 집중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2026년 예산안을 982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7.85% 늘어난 수치로, 인공지능(AI) 기반 행정부터 교육·복지·도시 인프라까지 '미래도시 동대문' 건립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구는 일반회계 9575억원, 특별회계 249억원 등 '2026년도

예산안'을 최근 구의회에 제출했다. 여기에 중소기업육성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559억원 규모 기금을 별도 운용에 제정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예산 편성의 키워드는 ▲AI 혁신 디지털 성장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삶이 풍요로운 문화도시 ▲약자와 동행하는

복지도시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경제도시 ▲안전하고 걷기 좋은 도시가 그것이다.

먼저 디지털 분야에서는 AI를 행정 전반에 본격 이식한다.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인공지능 카메라를 설치하는 'AI 불법 지킴이' (6000만원), 장한림·경희의료원을 잇는 자율주행버스 운행(2억원), 경동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자율주행 AI 순찰로봇(6000만원), 노후 위험시설 안전관리 디지털 시스템 유지관리(2억5000만원) 등

이 대표 사업이다.

교육 분야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며 공격적 투자를 이어간다.

2026년 교육예비보조금은 180억원으로 증액 편성됐고, 지역에 대학과 연계한 영어교육(2억7000만원),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메우는 우리동네기초돌봄 9호점 조성(4억원), 청소년 야트막 운영(7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문화도시 조성의 축은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과 문화도시 사업

이 많다.

구는 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5000만원), 동대문구 아톰 예술공간을 활용한 열린 문화 플랫폼 운영(4억3000만원) 등에 예산을 배정해 블록체, 동대문레스티벌과 함께 '일상 속 문화 인프라'를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복지다. 전체 예산의 56.62%에 해당하는 5562억원이 복지 분야에 배분됐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bo.co.kr

여의도 화랑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영등포구, 신속·적극행정 지원

용적률 400% 244가구 건립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여의도 화랑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을 인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여의도에서는 처음으로 추진되는 소규모 재건축이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200가구 미만인면서 대지면적 1만㎡ 미만의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정비계획 수립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도 돼 일반 재건축보다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여의도 화랑아파트는 160가구, 대지면적 9395㎡로 1977년 준공된 후 약 50년이 지난 노후 단지여서 재건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약 87%의 토지주소유자 동의를 확보해 높은 주민 의지로 조합이 탄생했다.

조합은 재건축에서 단계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변경을 용적률 400%, 지상 4층 244가구로 계획했다.

향후 조합은 설계자 선정, 통합심사, 분양신청, 사업시행계획 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 포함), 이주, 해체, 착공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구는 향후 여의도 아라비자구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용적률 400%에 상응하도록 하며, 정비계획 수립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도 돼 일반 재건축보다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여의도 화랑아파트는 160가구, 대지면적 9395㎡로 1977년 준공된 후 약 50년이 지난 노후 단지여서 재건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약 87%의 토지주소유자 동의를 확보해 높은 주민 의지로 조합이 탄생했다.

조합은 재건축에서 단계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변경을 용적률 400%, 지상 4층 244가구로 계획했다.

향후 조합은 설계자 선정, 통합심사, 분양신청, 사업시행계획 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 포함), 이주, 해체, 착공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구는 향후 여의도 아라비자구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용적률 400%에 상응하도록 하며, 정비계획 수립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도 돼 일반 재건축보다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여의도 화랑아파트는 160가구, 대지면적 9395㎡로 1977년 준공된 후 약 50년이 지난 노후 단지여서 재건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광진구, 군사체력인증센터 개소

운동측정장·체력증진교실 조성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최근 구민들의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한 '서울체력9988 군사체력인증센터'(군자로 151)를 정식 개소했다.

군사체력인증센터는 '더 건강한 서울 9988·3·3·3' 정책에 따라 기존 군사건강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 체력인증기관 지정 요건에 맞게 정비해 조성했다.

시설은 314.16㎡의 총면적에 2층에는 ▲운동측정장 ▲운동처방실, 3층에는 ▲체력증진교실 등의 공간을 갖췄다. 위동임인오기, 양복달리기, 악력측정기 등 각종 운동 장비와 합압측정기, 체지방분석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군사체력인증센터의 '서울체력 9988'은 과학적 체력 평가를 바탕으로 건강관리 전문가를 지원하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혈압, 체중, 체지방률, 근력, 심폐지구력 등 연령대별 체력 수준을 측정할 뿐, 건강운동관리사가 맞춤형 운동처방을 안내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돕는다.

평가 결과에 따라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오는 2026년 1월2일부터는 광진구체육회와 연계해 생활체육 등 건강·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마이 트레이너 서울(My Trainer Seoul)'과 연동한 이용자 건강 관리도 지원할 계획이다. 개인화된 운동일지 작성이 가능하며, 체력 등급이 상승하면 연 최대 1만 건강 점수가 지급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18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체력 측정은 '손목타력9988' 앱으로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전 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오는 2026년 2월 구의체력인증센터에 추가로 개소하고 주민대신 체력 관리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대우 기자 yy@siminibo.co.kr

간추린 뉴스

간강비 공동체사업 성과공유회

구로구가 최근 구청 5층 강당에서 '간강비 공동체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간강비 공동체'란 지역 주민들이 함께 건강소모임을 구성해 마을의 보양이나 등 동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사진은 정인홍 구청장이 공유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성동구, 내일 전·월세 안전 점검 특강

성동구(구청장 정원호)는 6일 오후 2시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하는 '전월세 안전거래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률문제를 바로 알고, 구민이 스스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아동학대 대응 성과공유회
강사구가 최근 진교로 구청장을 비롯해 경찰청, 강서경찰서, 공익부·공익리더 등 민·관·경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신미술관에서 '아동학대 대응 유관기관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진 구청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강남구, 전국 최초 인·허가 통합시스템 구축... 등록면허세 업무 효율 10배 ↑

누락·오류도 줄어... 디지털 혁신 사례 확산키로

강남구(구청장 조상명)가 등록면허세 부과를 위한 전국 최초의 '디지털 트윈 기반 인·허가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업무 효율을 10배 이상 높였다고 4일 밝혔다.

구는 매년 16만건에 달하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를 정확히 매기기 위해서는 구청 내 수많은 부서가 발급하는 허가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지만, 이전까지는 인·허가 정보가 위상과, 지역경제, 의약과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어, 부서마다 시스템도 달라 담당자가 각각의 대장을 요청하고 문서를

비교해야 했다.

이에 구는 공공데이터 API를 활용해 정부의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최신 정보를 매일 자동으로 가져오고,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했다.

구가 개발한 이 시스템은 자동 수집된 인·허가 정보를 바탕으로 '할 일 목록(To-do list)'을 생성해, 담당자가 매일 어떤 변경사항

을 처리해야 하는지 한눈에 확인하고 일괄 반영이 가능해졌다.

도입 이후 5주간 수집된 자료는 무려 5999건에 달했다. 기존 수집량에 비해 10배나 증가하면서 누락이나 오류는 줄고, 세무 부과의 정확도와 신뢰도는 크게 높아졌다.

조상명 구청장은 "디지털 행정 선도 도시로서 혁신 사례를 아낌없이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bo.co.kr

목동 1~3단지 정비구역 지정... 최고 49층 1만206가구 공금

양천구, 14개 단지 퍼즐 완성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목동1~3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이 4일 구의회에 따라, 14개 단지 정비구역 지정이 모두 완료돼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도약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구는 연내 모든 단지 정비구역 지정 완료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며, 총 4만7487가구 규모의 '신도시급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이라는 중장기 목표를 한층 더 실현할 수 있게 됐다.

목동아파트 재건축 마지막 퍼즐이었던 목동 1~3단지는 14개 단지 중 유일하게 2층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문제로 갈등이 있었으나, 민선 8기 출범 이후 국·도·시·구 공과와 양양현을 연계한 열린 녹지 '목동그린네이 조성' 제인으로

로 약 20년간 담보상태였던 종상향 문제가 해결되면서 정비계획에 탄력이 붙었다.

정비구역 지정으로, 목동1~3단지는 1만2067가구 규모의 개발 단지를 구축하게 됐다. 목동 1단지는 기존 15층 1882가구에서 최고 49층 3500가구로 탈바꿈되며, 약 12500㎡ 규모 근린공원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목동 2단지는 기존 15층 1604가

구에서 최고 49층 3389가구로 조성되고, 공공지원시설 등을 마련해 생활밀착형 커뮤니티 거점을 강화한다.

목동 3단지는 기존 15층 1588가구에서 최고 49층 3317가구로 변신하며, 저층 주거지와 연계한 1만㎡ 규모의 근린공원을 생기고 기존 어린이집 재건축 등 기반 시설이 보완된다.

박소진 기자 zin@siminibo.co.kr

송파구, 8일 장기동 복합청사 개청

'행정+문화+복지' 복합 공간 조성

송파구(구청장 서강식)가 오는 8일 '장기동 복합청사(송이로31길 10)'를 개청한다.

4일 구에 따르면 이번엔 개청되는 신청사는 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행정·문화·복지 기능을 한곳에 모은 지하 1층~지상 4층 총 연면적 3976㎡ 규모의 주민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됐다. 이는 송파구 27개 동 청사 중 가장 큰 규모다.

특히 민원실, 자치회관, 주민공유공간 등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함에 따라, 주민들의 일상 편의와 이용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상 1

층에는 종합민원실, 공유유휴공간, 새마을문고와 프로그램실이 마련된다. ▲2층에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주차무소가 입주하고 ▲3층에는 재택단련실, 탁구장, 프로그램실 등 자치회관과 주민공유공간이 들어선다. ▲4층에는 대강당과 대내부, 시설관리공단 민원실 등이 배치된다.

"장지동 복합청사" 개청식은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 장기동 복합청사 4층 대강당에서 지역주민 등 100여명과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서강식 구청장은 "더욱 살기 좋은 명품 주거 도시 송파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bo.co.kr

도봉구, 취약계층에 난방비 지원

이달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도봉구(구청장 오연석)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비(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를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인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신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의 경우 29만5200원, 2인 가구 40만7500원, 3인 가구 53만2700원, 4인 이상 가

구 70만1300원이다.

기존 에너지바우처 이용자는 동절기 난방요금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난방을 에너지이용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정환·신규 신청 모두 오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방문) 또는 복지포 누리집(온라인)에서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신청인은 대리신청 또는 담당 공무원의 직접 신청도 가능한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오연석 구청장은 "추운 겨울, 난방비 부담은 소외된 이웃의 생계와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구는 필요한 분들이 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집사를 돕겠다. 대상 가구에서는 기한 내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민호 기자 mmh@siminibo.co.kr

종로구 주얼리 AI 교육 수료생을 디자인 공모전 수상

종로구(구청장 정문현)의 K-주얼리 AI(인공지능) 교육 수료생 16명이 국내 최고 수준의 주얼리 디자인 공모전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4일 밝혔다.

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국제주얼리디자인공모전 2025'는 전 세계 90여개국에 참가하는 명품 디자인 대회로, 올해는 주얼리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반영해 AI 디자인 특별부분을 신설했으며, 수료생들은 디자인·광고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특히 이번 수상은 지난 9~11월 종로구와 서울시대교(제)원주주얼리산업진흥재단, 미래주얼리혁신이 협력해 진행한 'K-주얼리 AI(인공지능) 실무 혁신 교육' 결실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교육은 업계의 88%를 차지하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 과정으로 개발됐다. 주요 내용으로 'AI를 활용한 버추얼 모델 생성 및 마케팅·소통 광고 영상 제작', 'AI 활용 특장점 개발 디자인 개발'이 있다. 참여자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전문성과 실용성을 모두 높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문민호 기자 mmh@siminibo.co.kr

성북구, 청년 소셜벤처 혁신경영대회 성과공유회

성북구(구청장 이윤호)가 청년 소셜벤처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에서 '2025 성북구 청년 소셜벤처 혁신경영대회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4일 구에 따르면 이번 성과공유회는 지난 6월 성북구 청년 소셜벤처 혁신경영대회 수상팀과 사회적경제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대학생 20여명이 참여했으며, 각 팀은 그간의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평가위원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평가위원으로는 김중훈 한국사회기치연대비서 부부장, 이명준 고려대학교 캠퍼스타운조성추진단 사무국장, 이원태 함께일하는재단 사무국장, 박진갑 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 센터장이 참여해 성장 가능성, 사업 방향 설정, 투자 유치 등에 대해 실무 조언을 제시했다.

문민호 기자 mmh@siminibo.co.kr



간강비 공동체사업 성과공유회
구로구가 최근 구청 5층 강당에서 '간강비 공동체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간강비 공동체'란 지역 주민들이 함께 건강소모임을 구성해 마을의 보양이나 등 동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사진은 정인홍 구청장이 공유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성동구, 내일 전·월세 안전 점검 특강

성동구(구청장 정원호)는 6일 오후 2시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하는 '전월세 안전거래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률문제를 바로 알고, 구민이 스스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양강 일대는 범법범인 거인의 대표번호이사회 법률 방송에도 다수 출연한 신종민 변호사가 나선다. 부동산 관련 주요 법률 상식, 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전세사기 주요 유형과 예방법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소개한다.

박소진 기자 zin@siminibo.co.kr

서대문구, 11·18·20일 노벨상 학문적 가치 강연

서대문구자연사박물관이 노벨상의 학문적 가치와 사회적 의의를 소개하는 '2025 노벨상 해설 특강'을 마련했다.

4일 구에 따르면 관련 분야 대학교수들이 강연자로 나서 올해 노벨상 과학 분야 수상자들의 연구 성과와 그 의미를 청소년 눈높이에 맞추어 해설한다.

또한 최신 과학기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청소년들에게 미래 과학기술 분야의 진로 방향성을 제공한다.

우선 오는 11월 오후 7~9시에는 '2025년 노벨 물리학상' 해설이 예정돼 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미래 양자 기술 개발의 토대를 마련한 존 클라크(미국 버클리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 마셜 드브레(미국 예일대 명예교수), 존 마리아니(미국 샌타바버라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가 수상했다.

이와 관련해 양자 분야 전문가인 성균관대학교 양자정보공학과 정원호 교수가 2025년 노벨 물리학상의 의의와 성과에 대해 강연한다.

18일 오후 7~9시에는 '2025년 노벨 생리학·의학상' 해설이 진행된다. 20일 오후 2~4시에는 '2025년 노벨 화학상' 해설을 들을 수 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bo.co.kr

은평구, 내년 3월2일부터 부동산 민원 AI 서비스

은평구(구청장 김이경)가 오는 2026년 3월2일부터 '부동산 민원 AI 자동응답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번 서비스는 토지거래허가, 전세사기,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중개업 등록 등 증가하는 부동산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된 디지털 기반 민원 혁신 사업으로, 부동산 민원을 24시간 상담할 수 있다.

구는 주민들의 편리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카카오톡 공식 채널 '은평구청 부동산정보'를 새롭게 개설했다.

또 주민들이 채널에 가입한 후 채팅창에 질문을 입력하면, AI가 24시간 즉시 응답해 필요한 민원 정보를 단계별로 안내한다.

해당 채널을 통해 주민들은 부동산중개업 개설·이전·폐업 관련 절차, 토지거래허가 절차, 부동산거래신고 및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지원 등 실생활에 필요한 주요 민원에 대해 24시간 자문응답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bo.co.kr

성북구, 청년 소셜벤처 혁신경영대회 성과공유회

성북구(구청장 이윤호)가 청년 소셜벤처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에서 '2025 성북구 청년 소셜벤처 혁신경영대회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4일 구에 따르면 이번 성과공유회는 지난 6월 성북구 청년 소셜벤처 혁신경영대회 수상팀과 사회적경제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대학생 20여명이 참여했으며, 각 팀은 그간의 사업

이대우 기자 nice@siminibo.co.kr